

협회장동정



- ▶5월 17일 : 한·프 국제
 종돈세미나 (대전 유성 아
 드리아 호텔)
- ▶5월 31일 : 한우심사기술
 교육 (강원도 축산기술연
 구센터)
- ▶6월 1일 : 금보육종 준공
 식 참석(강원 원주 종돈장)

**2006 종돈능력검정보고회 및
 한·프 국제세미나 성황리 끝내**



(사)한국중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 종돈개량 부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06 종돈능력검정보고회 및 한·프 국제세미나를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약 120여명의 종돈농가 및 양돈농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세미나를 마쳤다.

세미나에 앞서 지난해 검정실적 우수 종돈장으로 선정된 △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 △ 가야육종(주) △ (주)다비청림종돈장 등 3개소와 검정실적 향상 우수농장인 △ 지엠지 △ (주)금보육종에 대한 시상식이 치러졌다.

이후 김정일 팀장으로부터 2006년 종돈능력검정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프랑스 양돈기술 연구소의 클레르 앳센프라츠씨의 ‘프랑스의 종돈개량 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유병현 박사의 통역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멀티진 플러스의 대표 질 바이살링씨의 ‘종돈장 위생관리’에 대한 주제로 박지용 박사(국립수의과대학검역원)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뉴클리어스의 대표 자끄 구르플롱씨의 ‘PSY 30 두 달성을 위한 핵심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김성훈 박사(돈돈팜(주))의 통역으로 이뤄졌다.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한우 2세에서 3세대 분만 성공

‘복제소간의 교배에 의해 손자 태어나’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지난 4월3일과 14일 축산연구소에서 복제 한우 암소 2세대 2마리에서 3세

대 송아지 2마리를 정상적으로 분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연구소에서는 지난 1999년12월 복제소 “새빛”을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 복제소 20여 두를 생산하여 현재 15두(제주축산진흥원 암수 3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2두의 복제 암소는 건강한 복제소 후대를 생산한 바가 있다.

이번에 태어난 3세대 복제 송아지는 2세대 복제 암소에 복제수소 정액과 일반수소 정액을 각각 인공수정하여 태어난 것으로,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소 생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2세대 복제 암소와 복제수소와의 교배에 의해 3세대 송아지가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물복제와 관련한 발생공학 분야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축산연구소에서는 복제소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복제소 및 복제소 후대를 지속적

으로 생산하고, 그 생리적 기능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복제소 생산효율 증진기술과 외래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복제소 생산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함으로써 미래 부가가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제2회 축산연구소 젊은 과학자상 결과 발표

- 최우수상에 장애라 박사 선정-



아래 왼쪽부터 이성대, 고한중, 김재환 축산연구소장, 장애라, 이상훈, 김효선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개소 55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한 제2회 축산연구소 젊은 과학자상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야별 21명이 응모하여 3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최우수상에는 충남대 박사후 과정 중인 장애라 박사(축산물가공·이용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이상훈(조사료자원분야), 이성대(가축영양생리·사양분야), 장려상에는 김재환(동물생명공학분야), 김효선(가축유전자원·육종·번식분야), 고한중(축산시설환경분야) 박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분야별 심사위원단의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우수자 6명에 대해 공개발표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은 “이번에 최종 선정된 6명 모두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금후 우리나라 축산의 대들보 역할을 기대하며 금후 연구소 연구직 특별채용 또는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이번에 수상한 젊은 과학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향후 축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공모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 고급육 우수농장의 날 행사 개최

“FTA 시대 한우 비육우 사업에 새로운 비전 제시”



우성사료(대표 이사 지평은)가 지난 8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강화지역을 비롯한

경기, 강원권 비육우 사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우성사료는 지난 16년간 비육우사료판매 업계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우마루"라는 한우 고급육 사료로 수많은 실증을 만들어 그 우수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화군에서 "한우마루" 사료를 급여해 남다른 성적을 보여준 이동현, 한만희, 배상식 사장의 성적을 공개했다.

이동현 사장은(선원면 냉정리) 우성사료의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사육한 한우 17두를 24개월령에 출하한 결과 평균 지육체중은 406kg에 1등급 이상 출현율 82%, 1+ 등급 이상 출현율 47%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전국 평균(600만원) 대비두당 76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사장은 “한미 FTA로

인해 불안한 요즘 우성사료 고급육 프로그램으로 사육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선별 출하가 아니라 23~24개월령에 밀어서 출하했는데 1등급이 많이 나와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배상식 사장은(불은면 삼성리) 고급육 프로그램으로 사육한 입식 한우 11두를 농협서울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한 결과 1등급출현율 100%(1++ 등급 4두, 1+등급 5두, 1등급 2두)의 쾌거를 이룩했다. 배 사장은 “우성사료가 좋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양질의 서비스에 농장주는 신경 쓸 일이 크게 없다”며 “우성사료 고급육 프로그램으로 사육한다면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도 자신 있다. 향후 우사를 더욱 확장해 120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만희 사장은(송해면 양오리) 900만원짜리 한우를 출하해 화제를 낳았다. 8두를 출하한 결과 1, 2 등급 출현율 100%(생후 26개월)을 기록했으며, 이중 900만원짜리 한우가 나온 것이다. 한 사장은 “수입육으로 인해 불안한 요즘 ‘더 한우마루’로 사육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가격이 낮은 사료가 싼 것이 아니라 높은 품질력과 고효율로 실제 사료비가 적게 드는 사료가 싼 사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 동안 육우위주의 정육형 비육형태인 강화시장에서 한우 고급육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과도기에 나온 실증자료라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고곡가 및 FTA라는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 좀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의 비육우 전문가 히다 리히사시 오비히로 대학교 명예교수와 의 기술

제휴를 통해 '더한우마루' 라는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를 출시하였다.

육량과 육질면에서 탁월한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더한우마루는 마블링에 필요한 고급 에너지원으로 식물성 천연보호지방을 기용했으며, 비육중기에는 비타민A의 함량은 낮추고, 보호비타민C를 특수 첨가해 마블링이 섬세하게 되도록 설계됐다.

한우 한 마리가 보리 후레이크 200kg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유백색의 고급지방이 축적되고, 유기태 셀레늄과 아연, 유기태 코발트와 크롬, 비타민 E를 첨가해 가축의 건강유지와 선홍색의 육색이 유통과정에서 더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본의 히다리히사시 교수의 "일본고급육 핵심기술 및 더한우마루의 기술적 배경" 이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의 강의도 병행되었다.

히다리히사시 교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16년 앞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으나 지금은 화우 고유의 시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며 "옥수수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사료자원 확보, 안전한 고품질육 생산, 지역 내 부산물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육성기부터 비육전기까지 농후사료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얼마나 질 좋은 조사료를 급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며 "비육기에는 근육



오비히로 대학의 고급육 전문가 히다리히사시 명예교수가 '고급육 생산만이 살길이다'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속 마블링 형성을 위해 비타민A 급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비타민C를 보충해 줄 것" 을 제시했다.

“OIE 결정 수용할 수 없다”

원정투쟁단 귀국직전 기자회견 “투쟁지속 축산사수” 천명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조정 저지를 위한 프랑스 원정투쟁단이 지난달 25~27일 모두 귀국했다.

투쟁단은 귀국직전 파리 시내에 위치한 OIE(국제수역사무국)

본관 앞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상향조정 한 OIE의 결정과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적인 연대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우영목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OIE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 농가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투쟁은 계속될 것” 임을 천명했다.

OIE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미국의 광우병 등급 상향조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투쟁단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농가들을 대표해 참가했다”는 책임감으로 체류기간 내내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에 임해왔기에 그 실망감은 더욱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사수에 대한 한국 양축농가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세계에 전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번 원정투쟁의 의미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말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에서 오직 한국의 쇠고기 산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투쟁에 임한 참가자 모두는 OIE의 결정을 떠나 그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축산업과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IE의 결정과 동시에 미국의 압력이 한층 강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투쟁단이 보여준 굳은 의지가 우리 양축농가와 정부에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FTA에 대응한 가축개량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 성료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2007년 5월 10일, 농촌진흥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경대학교,

한국동물자원과학회와 공동으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FTA에 대응한 가축개량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축산연구소 개소 55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목표를 세워 추진한 가축개량사업의 효과와 실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FTA에 대응한 가축개량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 제1주제 : FTA에 대응한 가축개량 정책방향(농림부 최염순 서기관), △ 제2주제 : 가축개량 기술의 변화와 전망(축산연구소 김

시동 박사), △ 제3주제 : 가축개량의 경제적 가치(한경대 이득환 교수), 4주제 : 정읍한우개량 성공사례(정읍한우협회 박승술 회장), △ 제5주제 : 농가 젓소검정 성공사례(노곡목장 최명희 대표), △ 제6주제 : 가축개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건국대 김정주 교수), △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청은 농업기술 분야에서 농업선진국의 기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며, 축산업에서도 경쟁상대국보다 뛰어난 종축을 생산할 수 있는 가축개량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기이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축산농가와 관련 주체들이 가축개량 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일체감을 조성하여 우리 축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 치즈제조 워크숍 성료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와 한국 목장형유가공연구회(회장 김수영)는 2007. 5.

7~5. 10(4일간), 축산연구소(수원) 유가공장에서 재독교포인 정용삼 치즈장인을 초청하여 치즈제조원리 및 숙성방법 등 유럽풍의 치즈제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는 새로운 유제품 제조기술 보급을 통한 잉여원유의 효율적 이용기술 확립과 우리나라 목장형 유가공 활성화로 유제품

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시되었으며, 낙농가, 유업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하여 신선치즈, 고다치즈, 털지터, 베르크 치즈, 라클렛, 리코타, 이탈리아 치즈, 버터 및 가공치즈 제조법에 대한 이론교육은 물론 개별실습으로 현장감을 더하였다.

자운영을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자운영 한번 파종으로 매년 활용’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는 한미 FTA 체결에 맞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시

장을 지켜내고자 자운영을 이용한 친환경 벼 재배와 벼 적기이앙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소개하였다.

벼농사에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벼알이 여무는 시기에 일조차가 크도록 모내기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5월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내기 시기가 빨라져 고온기에 벼가 여물어 품질 나쁜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조기재배가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늘면서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녹비작물로 많이 재배되는 자운영은 종자가 채 여물기도 전에 논에 갈아엎고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매년 종자를 수입하여 파종해야만 했다.

자운영은 친환경 녹비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종자가 생산되지 않아 2006년도에 3,566톤을 수입하면서 4,636천\$의 외화를 낭

비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개된 핵심기술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운영을 결실기에 토양에 투입하는 기술로써, 남부지역에서 자운영을 종자가 여무는 5월 20일 이후에 갈아엎어 유기물의 형태로 흙속에 넣어준 후 벼를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6월 초순에 이앙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땅에 떨어진 자운영 종자가 가을철에 새싹이 돋아나므로 1회 파종만 하면 매년 종자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

이 기술은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체계화하고 영농현장에서 한국쌀연구회 고성군지회장인 황영조 씨가 직접 검증한 것으로, 고성군에서도 이 기술을 브랜드 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역점사업으로 발굴하고, 벼 적기 이앙을 위한 자운영의 제때 갈아엎기 장려금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ha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품목별 맞춤형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시간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의 업무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양돈과 김인철 과장 외 4명은 5월 9일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홍빈)를 방문하여 양 연구소가 각각 추진하고 있

는 주요연구사업 및 계획을 소개하고 돼지만성 소모성질환 농가피해 감소방안과 축산연구소 등록계통조성돈의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축산발전을 위한 중앙 및 지역기관간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향후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가기술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외부 양돈전문가 초청 현장 기능직 대상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양돈과에서는 5월 7일 양돈컨설팅연구소장 안기홍 박사를 초청하여 연구

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 양돈 산업 동향 및 모든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돈과는 방역관계로 외부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장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최신양돈기술에 대한 직원대상 강좌를 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예산지부 돼지인공수정센터 컨설팅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양돈과장(김인철)은 5월 1일 대한양돈협회 예산지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수정

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기술자문 및 토의를 실시하였다. 주요컨설팅 내용은 종모돈 질병예방 및 사양관리, 위생적인 정액제조 및 농가활용 개선 방안 실기 등을 지도하였다. 예산지부 돼지인공수정센터는 '02년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설립되어 30여개 농가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축산연구소 양돈과 제2단지 방역실 및 실험실 착공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이상진) 양돈과에서는 등록품종계통조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제

2단지의 방역실 및 실험실 공사를 지난 4월 13일 착공하였다. 현재 양돈과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는 PRRS-free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단지는 연말 인공수정센터에 배부할 예정인 등록계통조성돈을 사육하고 있다. 이번 방역실 및 실험실 신축은 면적이 274.14m²로 기존 방역실을 보완하여 방역차단관리를 강화하고 현장기본시험을 수행하는 실험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연구소내 양돈장의 질병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래돼지 사육현황조사차 “산우리 재래흑돼지 영농조합 정기총회” 참석

축산연구소 양돈과 전기준 박사는 5월 10일 우리나라 재래흑돼지 사육실태 조사차 (주)한국푸드시스템 회의실에서 열린 “산우리 재래흑돼지



영농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산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재래 흑돼지 산업화를 위한 사육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래흑돼지 사육농가의 조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2회 친환경 총체보리한우 축제



“개방화시대 명품한우의 지속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과 총체보리 이용방안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김제시는 지난 5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보리 생산을 통한 새로운 한우사육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자급조사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총체보리와 한우를 연계한 제2회 친환경 총체보리한우 축제를 개최하였다. 특히 김제시가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특별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총체보리한우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김제시의 이견식 시장은 “심포지엄을 비롯한 시연·평가회 및 전시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인 총체보리한우 축제를 계기로 김제가 총체보리의 메카로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민들의 소득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 첫째 날인 7일에는 축산연구소와 친환경총체보리사료화연구회가 주관하고 김제시와 전북한우협동조합이 후원한 “개방화시대 명품한우의 지속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과 총체보리 이용방안”이란 타이틀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 1주제 발표는 ‘명품한우의 지속성과 균일성을 위한 개량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남대 이지웅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 교수는 “한우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의 특성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양관리와 사료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씨수소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배계획을 수립하고 한우브랜드별 자체 보증종모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축 및 사양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2주제 발표는 ‘명품한우 생산을 위한 최적 교배전략’에 대하여 축산연구소 김시동 박사가 강연하였으며, 김박사는 “사람과 비유하여 개량에 대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그동안 농가에서 직접해야할 혈통관리나 체중 측정을 왜 해야 하는지 농가에서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무엇을 먹인 소라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얻으려 했다며 이제는 품질로서 진정한 브랜드의 특징을 설정해 나가야할 때”라고 하였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주제는 ‘자연순환농업 관점에서의 총체보리 재배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대 이

효원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교수는 “부족한 조사료의 대체목적으로 약 72만톤 정도의 외국 산 조사료가 수입되고 있으며 약 1,700억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며 대부분 사료가치가 낮은 저급품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FTA 등의 영향에 따른 국내의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농촌의 비 재배에 의한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답리작을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의 활용적 가치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총체보리와 혼과를 통한 연구자료를 통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 하였다.

4주제는 ‘총체보리 최대 생산과 저장 이용기술’에 대하여 축산연구소 김원호 박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김박사는 “총체보리에 대한 그동안의 실질적 실증시험자료를 근거로 총체보리가 단위중량당 사료적 가치가 높아 배합사료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항간에 떠도는 가격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리작 사료작물과 수입조사료의 가격비교 및 총체보리의 소득비교를 통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ha당 생산성 향상기술과 총체보리의 저장기술, 급여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며 총체보리의 사료화에 따른 이용 가치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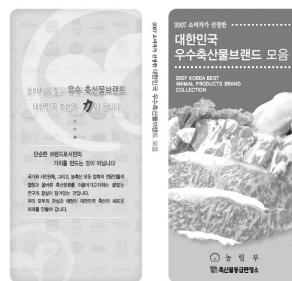
마지막 5주제는 ‘경쟁력확보를 위한 총체보리 한우유통 성공사례’에 대하여 총체보리한우유통사업단 오능희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오대표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15개소의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총체보리한우가 어느 브랜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며 농가가 좋은 고기를 생산해 준다면 속이지 않고 한우로서

정정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제공하여 한우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생산자가 좋은 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해 준다면 수입고기와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생산자에게도 충분히 보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과는 별도로 김제시 광활면 시범포 현장에서는 총체사료용 맥류품종(총체보리, 총체밀, 호밀, 구리, 트리티케일 8품종) 소개 및 생육평가를 위한 ‘총체사료 맥류용 생산성 현장연구 평가회’가 있었다.

둘째 날인 8일에도 총체보리한우 한마당 잔치, 조사료 생산교육, 조사료 수확 및 액비살포 시연회가 열렸으며 그 외에도 벽골제 광장에서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전시를 비롯 총체보리한우 전시, 총체보리사료 및 총체보리한우 홍보, 총체보리한우 초음파육질진단 시연,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비교시연, 농업관련 농기계 및 기자재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2007 소비자가 선정한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음집 발간 배부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우수축산물인증 브랜드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모음집을 발간 배

부하였다.

‘2007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모임' 홍보책자 20,000부를 발간해 소비자단체, 원산지의무표시 대상업소, 유통업체, 생산단체, 브랜드경영체 등에게 지난 15일 배부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임'에는 2007년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 받은 한우 15개, 돼지 14개, 육우 2개, 육계 5개 등 36개 브랜드에 대한 경영체 현황, 브랜드육의 특징, 업체 수상경력 및 주요 판매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초지 문제 잡초 '가시비름' 방제 걱정 "끝"
 「6월 중순~7월 중순 잎과 줄기에 살포해 완전 방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최근 제주지역의 목초지에 대량 발생하여 방목지를 황폐화시키는

외래잡초 '가시비름'의 발생생태와 방제 방법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가시비름은 비름과의 일년생 잡초로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이며 키는 70~120cm정도 자라고 잎자루와 줄기 사이에 한 쌍씩 날카로운 가시가 나와 있어 가축이 접근을 기피하는 잡초다.

가시비름이 나오는 시기는 5월 중순 이후 목초보다 늦게 나오므로 발생초기에는 목초아래 있어 찾기 어려우나 목초를 1차 수확 하거나 또는 방목을 마치고나면 이때부터 자리를 확보하여 온도가 높아지면서 빠른 성장을 하여 7~8월이면 목초지에서 쉽게 번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잡초다.

이처럼 발생시기가 늦으므로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가시비름 발생에 대한 무관심 속에 지난해 7~8월에 갑자기 왕성한 생육으로 목초지를 덮어 후기 조사료 생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가시비름을 목초지에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 처리 제초제 엠시피피 액제를 6월 중순~7월 중순(가시비름 키 10~20cm정도)에 약제 사용방법대로 살포하면 95% 이상의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원 오세문 과장은 "가시비름은 줄기를 꺾꽂이를 하여도 100% 뿌리가 나와 재생하므로 이미 발생된 가시비름 줄기도 잘 제거하여야 하며, 축산농가가 방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잡초의 발생시기와 방제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축산정책 당국에서 대상 제초제를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인터넷 기반 안전성검정 시스템 세이프큐(SafeQ) 홍보



목포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중천)은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검정을 집에서 바로 신청 할 수 있는 세이프큐(SafeQ)시스템을 본격 가동함에 있어, 마침 목포시와 목포대학교가 주최한 목포시스포츠킴강축제(2007.5.19~5.20) 기간동안 세이프큐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이프

큐 안내문을 배부하고 퀴즈풀기와 세잎큐의 가입, 처리절차를 함께 알아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편리하게 각종 안전성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기대될 것으로 본다.

세잎큐(SafeQ)는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한 안전성검정 시스템으로 농민, 소비자 등 검정을 원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정을 신청하고, 시료는 택배로 보내는 디지로그(Digilog)방식의 시스템으로 www.safeq.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검정신청을 하면 된다.

성판별을 이용한 소 수정란이식 실용화 가능 '축산연구소-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학술대회'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한국수정란이식학회(회장 김상근)

과 공동으로 5월18일(금) 전북대학교 자동차산학협력원에서 대학교수, 대학원생, 개업인공수정사 및 수의사 등 소 수정란이식 관련 연구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판별을 이용한 소 수정란이식 기술'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Aoyagi Yoshito(일본 전농수정란이식센터 소장, 북해도 소재)박사는 체내수정란을 매년 20,000개 정도 생산하는 일본 내 최고의 체내수정란 생산 연구자로서, 대부분은 화우수정란을 생산하여 젓소 대리모에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성판별 수정란의 경우는 젓소의 수

정란을 성판별하며, 수태율은 70%에 달하여 이미 농가 실용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동결기를 이용함으로써 더 좋은 수태성적을 내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또한 Hamano Seizo(일본 가축개량사업단)박사는 일본 내 최고의 체외수정란 생산 책임자로서, 혈청배양액으로 화우체외수정란을 연간 20,000여개 생산하여, 생산된 수정란은 대개 신선란으로 일본 전국에 배송하여 다음날 농가가 수정란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이미 성판별된 체외수정란을 함께 공급함은 물론, 매년 2,000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으며, 수태율은 이식지역에 따라 25~70%까지 차이를 보이나, 평균 43.6%의 수태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자의 성판별에 대하여 김현중 박사(축산연구소)는 성 분리된 정자의 경제성에 있어서는 원하는 성의 정자는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있으며, 지금과 같이 암소와 수소간의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용하나, 정자 성분리 기기의 구입비와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농가실용화와는 비용절감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멸종위기 동물 종축 등 국가차원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시환 박사(진주산업대학교)는 "소 수정란의 일부를 채취하여 염색체 형광접합 식별방법(FISH)을 이용한 소 수정란의 성판별법으로서 염색체에 형광접합 DNA 프루브를 특허 출원중이며, 성판별 수정란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무료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란 1개의 성판별비용은 기존의 LAMP나 PCR 방법보다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축산연구소에서 준비한 성판별 방법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함은 물론 성판별 이용소 수정란이식기술의 활성화에 대한 사례발표에 관심을 가졌으며, 수정란이식 기술의 성공은 농가소의 사양관리 또한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돼지 만성소모성 질환예방 및 연구동향”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이상진) 양돈과에서는 5월 18(금), 축산연구소(성환) 대강당

에서 “돼지 만성소모성 질환 예방 및 연구동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양돈농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물론 전문지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양돈분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돼지 만성소모성 질환 예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주제 발표자별 질병예방, 사양관리 및 방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는 서울대 김유용 교수의 “질병예방을 위한 돼지 사양기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최규 박사의 “돼지질병발생 역학조사결과 및 방역”, 미국 텍사스텍 대학교 김성우 교수의 “질병예방을 위한 모돈능력 향상방”, 엘비씨 이오형 대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컨설팅 효과분석”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유용 교수는 질병과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사양관리는 건강한 돈군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상식돈사의 활용이 장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건강한 자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28일령 이후로 충분한 포유기간이 필요하고, 모돈 사료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제시하였다. 철저한 차단방역, 올인 올아웃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만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최규 박사는 4P로 알려진 만성소모성질환의 특징과 진단방법을 설명하고, 질병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강조하고, 컨설팅 수의사, 농장주, 방역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여 주었다.

김성우 교수는 질병예방을 위한 모돈의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모돈의 질병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자돈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임을 제시하여 주었다. 최근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논문에서 임신기 사료에 arginine을 공급하면 산자수 및 생시자돈수가 증가함을 이 발표를 통하여 알려 주었다.

농가 컨설팅 위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이오형 대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적극적인 대처와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렇게 할 때 돼지 질병에 의한 폐사율을 감소시켜 양돈장 경영이 원활할 것“을 주문하였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은 “축산연구소에서는 현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진단하여 오늘과 같은 심포지엄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이 행사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날 행사 전에는 최근 양돈과에 설치된 분만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하여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항생제 잔류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항생제의 올바른 이름찾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개방화시대 동북아 육우산업분야 협력방안 국제공동심포지엄



지난 5월17일 강원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강원대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채병조)와 한

국동물자원과학회 전국한우연구회(회장 원유석) 공동 주최로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개방화시대 동북아지역 육우산업분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원유석 한우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 타결이후 종합적인 한우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수출국의 입장에서 쇠고기 수출전략과 수입국 입장에서의 쇠고기 시장변화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것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를 정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또 치밀한 국내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참석자들의 지혜가 모여져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비롯 축산관계자 모두가 성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일을 만들어 한우산업 발전에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주제 '수출국 입장에서의

육우산업 전략' 과 제2주제 '수입국 입장에서의 육우산업'이라는 두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히 '동북아 육우산업의 현황과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기초연설을 해준 강원대 송영한 교수는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 등 지역주의를 확대 심화시키는데 주력하여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광역지역 통합체가 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향후 세계경제구도가 유럽, 미주, 동북아 3극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축산분야는 동북아 지역국간에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과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공생하기 위해서 지역간 특화를 통한 국가간 분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등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진다면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킴으로서 국가간 공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상호 비교 우위를 갖는 품목간에 특화형태로 추진하여 교역 또는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각 국가간에 축산분야에서만이라도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한편 미국과 호주 쇠고기 수출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두 나라 모두 수출을 위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품질차별화 전략을 표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는 한국 쇠고기시장의 크기나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미국산과 호주산과의 가격 마케팅 전략을 묻는 질문에서 현재 옥수수 대체연료 등의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점차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호주수출공사 지사장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한

국의 한우와 가장 근접한 품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호주산화우라고 답하기도 하여 우리 한우에 대한 유전자원의 유출을 차단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미트저널의 권영철 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강연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한우브랜드가 약 230여 개소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0여 개소, 그렇지 않은 곳이 78개소나 달해 절반 정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브랜드등록은 188개소, 40개소는 미등록 상태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특히 생산브랜드가 186개소, 유통브랜드가 42개소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유통시장 참여 여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한우브랜드는 사육규모가 작아 상품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 대안으로 광역브랜드사업이 떠오르고 있고 광역브랜드는 유통업체들의 선택을 넓게 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고급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광역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생산자 조직과 경영체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들은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문제발생시 강력한 제재수단까지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전문직관장과 식당개설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우 부위별 명칭에 통일성이 없어 유통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호주산 유기농쇠고기

의 경우도 실체가 없다며 시장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김성철 박사과정은 '중국 육우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에서 중국은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액의 30%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쇠고기 생산량에 있어서도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음식구조도 명확한 변화가 생겨 영양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은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은 고급육을 포함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의 육우산업은 가격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검역, 위생문제, 유통시설 및 냉장시설 등의 낙후로 인한 여러 문제로 인해 육우수출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중국의 육우산업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 수준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급여시스템, 사료의 안전성과 육의 품질, 질병관리, 개체의 능력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하면서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특히 축산물의 수출을 위해 구제역 등 동물역병이 없는 청정지역인 무규정동물역병시범구를 건설하고 국제적인 품질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축산물의 품질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마지막 강연은 전기후현육용우시험장장이었던 나카마루 데루히코 박사의 '일본의 육우정제와 고급육시장' 에 대한 주제발표로 화우가 육용종으로 개량이 본격화된 것은 1965년부터이며 화우육이 수입육과 완전차별화를 이룰 수 있

었던 것은 개량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하였다. 2007년 현재 육용우 사양두수가 2,788천두로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본격화된 199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고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사육호수는 1999년 142,800호에서 2007년에 63,000호가 되어 40% 감소하였다며 이유로는 업종전환, 고령화 등에서 찾을 수 있고 번식우의 대다수가 흑모화종으로 평균 사육두수가 8.2두로 아직도 소규모 경영이 많은 실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역 특색을 살려서 복합경영 및 높은 송아지 가격으로 농가 소득면에서 대다수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비육우는 가구당 평균 86.5두로 다두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일관생산경영이 늘어 대규모 경영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량면에서나 사양기술면에서 실용화시험에 매진하여 왔고 지금은 실제 현장에서 표준화된 기법들을 계승하고 더욱 개선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후현의 사례를 보면 육용우 개량을 추진하게 된 시작은 화우고기의 브랜드화 추진과정에서이며 2000년 광우병 발생으로 한때 화우고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나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 정부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실행에 옮긴 결과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쇠고기의 대량유통으로 많은 쇠고기를 접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양적인 만족이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안심, 안전대책을 위한 시스템 즉, 화우 등록제도의 전국적 정착에 따른 기록정보의 일관성 및 쇠고기 이력제 시행, 광우병 검사 등의 시행은 소비자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브

랜드 화우육은 꾸준히 가격을 유지하나 브랜드 없는 국산우육은 떨어지고 있고 화우 고급육에 대한 가격이 10~30%가 비싸도 소비자의 70%가 먹겠다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안전성에 중점을 둔 고급육 생산을 지향하면서 향후 경영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사료대책, 사양기술의 개선, 육종개량의 문제, 첨단기술의 응용, 쇠고기 브랜드화의 추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차별화의 명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이용 경남지역 연사회 열기가득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와 경남도청(사천시)은 지난 5월18일 사천시 정동면 감

곡리 복상들판에서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이용 확대를 위한 연사회를 경종농가, 기관단체 관계자등 250여명의 열띤 관심 속에 개최하였다.

축산연구소 서성과장은 사료용 총체보리의 사료가치와 가축 급여효과에 대해서, 조사료 정책방향(경남도청) 설명 및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 연시(축산연, 사천시)가 있는 후 총체보리 재배이용 관련 문제점·개선방안 등 종합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경남지역에서도 총체보리 등과 같은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연사회 등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는 내용과 총채보리 전용품종의 조속보급, 조사료 수확이용 기계장비 지원 확대, 경종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첨가제 지원 등을 요망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산연구소에서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요구했다.

도축세 폐지하면 그만큼 경쟁력 높아져...

축단협,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등 논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29일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쇠고기 이력제 등 축산관련 법률 개정 추진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윤 과장은 소 개체식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6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축세 폐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김영덕 의원 발의로 행자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대체재원 마련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자위 위원 전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량행위 투명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 HACCP 기준원 특수법 인화와 유효기간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남호경 회장은 과거 포도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포도 재배면적이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농림부 실무자들이 현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회 등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육우가 수입육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 육우매장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중앙진테크, DURAbulls 의 탄생



국내 우수 젖소정액 공급업체인 미국 ABS ABS Global사는 지난 5월 SIRE SUMMARY 발표 시점에 맞춰 젖소의 건강성과 유우

성을 종합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새로운 마케팅 브랜드인 DURAbulls를 개발하였다고 전했다.

DURAbulls는 최근 미국 California Daughter Tour를 통해서 소개되었고, 5월 셋째 주에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DURAbulls의 초점은 보통 목장주들이 건강형질과 장수성에 따라 정액을 선택하는 것에 착안하여 그 공식을 정립하였다고 말하고, 경쟁사의 동일 프로그램으로는 Select Sire의 Herd Builder와 Alta의 Health Plus가 있다고 전했다.

DURAbulls의 특징으로는 장수성, 유방 건강성, 딸소 임신율, 난산율 (종모우 및 딸소 난산율, 사산율 포함), 유방 점수, 지체 점수 및 body form에 의해 Durabull index 산정이 되며, TOP20안에 드는 종모우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www.jagenetec.co.kr

Tel: 02-587-1388 / Fax: 02-523-5914

동조물산(주), Lely Astronaut A3 5호기
2007년 5월 15일 호명 목장에서 Start up !!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 5호기가 5월 15일부터 경북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호명목장(대

표: 이종화)에서 가동했다고 전했다.

호명목장은 오래전부터 Welger베일러와 JF-STOLL 기계를 꾸준히 사용해 왔고, 타사 기계들과 꼼꼼히 비교 분석 후 Lely 아스트로넛 A3를 선택하였다고 전했다.

많은 목장주들이 로봇착유기 설치 후 A/S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동조물산(주)의 서비스팀이 24시간 365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동조물산(주)의 서비스 엔지니어들은 6월에 네덜란드 Lely 본사에서 있을 서비스 교육과 매년 열리는 서비스 미팅에 참가한다고 전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 젖소개량부, 캐나다 순위 23위

젖소종모우 입식 예정

- 미국, 캐나다에서 종모우 3두가 6월 말 입식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부장 오규락)는 5월 성적 기준 체형생산종합지수(TPI)

1,676으로 미국 70위수준인 미국 종모우 페이스를 포함 3두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도입, 6

월 말에 젖소개량부에 입식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미국에서 성적이 평가된 도입종모우는 알타-아이 페이스-이티(ALTA-I PACE-ET)와 실마리온 스탈리온-이티(SILMARILLION STALLION-ET)이며 캐나다에서 성적이 평가된 종모우는 클레이누크 빅토리(CLAYNOOK VICTORY)이다.

□ 페이스(PACE)는 체형생산종합지수(TPI)가 1,676이며 유지방 예상전달능력(PTAF)이 69파운드, 유단백예상전달능력(PTAP)이 52파운드로 뛰어난 생산능력 개량효과를 가진 개체이며, 종합지수와 체형성적은 현재 젖소개량부에서 보유중인 팀스터(H-290)와 비슷한 수준이나 유지방이나 유량은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비 혈통은 알타허셀(LEXVOLD LUKE HERSHEL-ET)이다.

□ 스탈리온(STALLION)은 체형생산종합지수(TPI)가 1,666이며 유량 예상전달능력(PTAM)이 2,293파운드, 유단백예상전달능력(PTAP)이 63파운드로 같은수준의 TPI와 유량개량능력을 가진 개체는 미국 내에서도 스탈리온을 포함하여 10두밖에 없다. 아비혈통은 마샬(RICECREST MARSHALL-ET)이다

□ 빅토리(VICTORY)는 캐나다 생애수익지수(LPI) 1,704로 23위의 젖소종모우이며 아비는 종합지수 100위 종모우에 8마리나 포진되어 있는 에머슨 혈통이며 외조부는 스타트모어 루돌프이다.

이번 젖소종모우 도입과 관련 실무를 맡은 농협 젖소개량부 김영호 차장은 “이번에 도입된 페이스와 스탈리온은 현지 정액가격이 24달러, 18달러”라며 “국내 검역기관과 젖소개량부의 엄격한 검역과정을 거쳐 7월 말에는 농가에 정액

을 공급하여 젖소개량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 제17대 조흥원 조합장 취임



지난 4월 17일 제17대 서울우유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조흥원 조합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조

흥원 조합장은 1965년 2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가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우유 11~12대 대의원, 제18대 감사를 거쳐 1999년 제15대 서울우유 조합장으로 당선된바 있다.

조흥원 조합장은 "위대한 서울우유를 창조합시다"라는 취임사를 통하여 조합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영광의 자리이기보다는 "조합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오라는 조합원의 엄숙한 명령"을 받는 자리로 생각하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며 서울우유 재창조를 위한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유 판매확대에 총력 둘째,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 셋째,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 넷째, 조합원 복지를 강화하고 낙농지원사업의 틀을 재구축

다섯째, 대외적인 서울우유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을 대신하여 치사에 나선 이정현 상무는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우유는 물론 우리나라 낙농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더불어 "선거 이

후 갈등을 털어 버리고 화합 단결하여 어려운 한국낙농 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조합이 되기 바란다" 고 밝혔다.

전임 조합장 대표로 축사에 나선 강성원 회장(서울우유 전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조합원들의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더불어 "언제나 끊임없이 꿈을 추구하고 원칙을 지키는 조합장이 서울우유를 이끌게 되어 변화가 많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끝으로 "낙농은 불멸이다. 낙농이 멸하는 날 민족의 지도력이 상실된다. 민족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연구소,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학술대회-성판별을 이용한 소 수정란이식 실용화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한국수정란이식학회(회장 김상근)과 공동으로 5월18일(금) 전북대학교 자동차산학협력원에서 대학교수, 대학원생, 개업인공수정사 및 수의사 등 소 수정란이식 관련 연구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판별을 이용한 소 수정란이식 기술' 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Aoyagi Yoshito(일본 전농수정란이식센터 소장, 북해도 소재)박사는 체내수정란을 매년 20,000개 정도 생산하는 일본내 최고의 체내수정란 생산 연구자로서, 대부분은 화우수정란을 생산하여 젖소 대리모에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성판별 수정란의 경우는 젖소의 수정란을 성판별하며, 수태율은 70%

에 달하여 이미 농가 실용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동결기를 이용함으로써 더 좋은 수태성적을 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Hamano Seizo(일본 가축개량사업단)박사는 일본 내 최고의 체외 수정란 생산 책임자로서, 혈청배양액으로 화우체외수정란을 연간 20,000여개 생산하여, 생산된 수정란은 대개 신선란으로 일본 전국에 배송하여 다음날 농가가 수정란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이미 성 판별된 체외 수정란을 함께 공급함은 물론, 매년 2,000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으며, 수태율은 이식 지역에 따라 25~70%까지 차이를 보이나, 평균 43.6%의 수태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자의 성판별에 대하여 김현중 박사(축산연구소)는 성 분리된 정자의 경제성에 있어서는 원하는 성의 정자는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있으며, 지금과 같이 암소와 수소간의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용하나, 정자 성 분리 기기의 구입비와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농가실용화와는 비용 절감 절감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멸종위기 동물 종축 등 국가차원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시환 박사(진주산업대학교)는 "소 수정란의 일부를 채취하여 염색체 형광접합 식별방법(FISH)을 이용한 소 수정란의 성판별법으로서 염색체에 형광접합 DNA 푸르브를 특허 출원중이며, 성판별 수정란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무료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란 1개의 성판별 비용은 기존의 LAMP나 PCR 방법보다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축산연구소에서 준비한 성판별 방법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함

은 물론 성판별 이용 소 수정란이식기술의 활성화에 대한 사례발표에 관심을 가졌으며, 수정란 이식 기술의 성공은 농가 소의 사양관리 또한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산내음목장 우수농장의 날 행사 개최



1983년 2월 송아지 5두로 목장을 시작하여 전국 최고의 목장으로 발전한 산내음목장(경기 영주시 은현면 운암2리, 대표 신동현)에서 로봇착유시스템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내음목장은 1997년 9월 IMF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2001년 2월 후계자가 목장 일을 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해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 후 혈통개량을 통하여 젖소의 능력향상과 경제수명 연장 그리고 고품질우유를 생산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렇지만 팔을 다친 후계자가 원만하게 목장을 운영할 수 없어 로봇착유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 기종을 검토한 후 동조물산(대표 이용구)에서 수입하고 있는 Lely Astronaut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2007년 3월 14일 첫 착유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원만하게 착유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06년 김정성적은 착유두수 47두, 305일 산유량 12,663kg, 유지율 3.98%를 기록하였으며, 전국김정농가 14위에 해당되는 우수한 성적이다. 더불어 2001년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양주지역의 젓소개량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개량경험과 목장운영 등을 낙농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낙농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강의를 실시한 김현진 박사가 로봇착유 시스템 도입에 따른 목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였으며, 특히 노동력 감소하고 생산성, 우유품질, 번식, 경영수익, 사양관리 등이 향상되어 목장에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착유두수 120두 이상이 되는 목장에서는 기존의 텐덤시설과 비교하여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미국자료가 있다고 소개하며, 로봇착유기 도입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은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보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윤기섭)에서 김정성적이 우수한 목장에 대한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aiak News NEWS 해외소식

미국, 분만우 공태일 150일시 1일 4천원 손해

젓소 분만 후 암소 공태일수가 150일시 하루 당 경제적인 손실금액이 4.4달러(한화 4천85원)에 달하고 이후 공태일수가 늘어날수록 손실금액이 커진다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이 발표하였다. 특히 공태일수가 190일시 1일 손실금액은 10.37달러(9천6백원), 210일시 13.49달러(1만2천원)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어 분만후 150일 공태 암소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손실금액이 거의 없는 최적의 공태일수는 분만후 110일 전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착유전 유두 자동세정장치 실용화

착유전인 젓소의 유두를 자동으로 세척하여 유방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일본 국가연구기관과 민간 공동연구로 개발되어 '08년 하반기부터 실용화 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통상 유두세척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시간이 걸리고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이러한 수작업의 미비점을 완전히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수 급수탱크, 오수 회수탱크, 배터리 내장 본체, 연결 호스와 세척 브러쉬가 내장된 유두컵 등으로 구성된 이 장치는 세척후 건조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를 개발한 일본 생연센터는 작업시간이 유두당 10초에 불과해 편리성이 뛰어나며, 세척 후 제

균효과가 우수하고 착유 전 유방자극으로 생산성도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

광우병 검사막는 '이상한' 美 농무부

미국이 최근 가축 질병 관리실태를 관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지위를 얻은 가운데 미 정육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 하려는 것을 미 행정부가 막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농무부는 29일 정육업자들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미 농무부는 도살된 소 가운데 1% 미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해왔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기때문에 이를 관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운데 캔자스주의 정육업자인 '크리크스톤 팜프 프리미엄 비프'가 다른 쇠고기와 차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모든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약 '크리크스톤'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을 조사한 뒤 안전하다고 광고 할 경우 덩치가 큰 정육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비싼 비용을 치르고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야만 할 수도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법정 다툼 끝에 연방법원은 지난 3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6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미 농무부는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돼 미국의 쇠고기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농무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는 크리크스톤은 정부가 행하는 것 과 같은 광우병 조사를 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국 등 전 세계에서 광우병으로 인해 150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에선 지난 2003년 12월, 2005년, 2006년 등 세차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적발됐었다.

캐나다, 젓소, 육우 생우 2천여두 러시아 수출

캐나다 가축유전자원협회와 비육우 위원회는 최근 지난 '03년 광우병이 발병된 이래 최대 규모인 2천 두의 젓소와 육우를 러시아로 수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홀스타인 젓소 975두와 흑색 앵거스 1천두로 알려진 이번 수출은 금액으로 750만 달러에 달하며, 젓소는 온타리오 및 퀘벡주의 150개 농가, 육우는 알버타, 사스카추원 등의 100여 농가에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출을 주도한 '알타'사는 유명 정액 생산기관인 '알타 제네틱'사 해외 담당자들이 '00년 설립한 회사로 가축 및 수정란, 정액 수출을 전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년 4월 음용유 소비 침체 지속

일본 중앙농회의는 금년 4월까지 음용유 판매량이 30만8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5%가 감소하여 4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지정 생산자 단체

별로는 북해도가 전년대비 6.7%가 감소한 5만 톤, 본토가 4.7%가 감소한 25만8천 톤으로 발표하였다. 반면 발효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8.7%가 늘어 난 4만3천 톤으로 12년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생크림은 6.9% 증가한 8만1천 톤, 치즈용은 3.4%가 증가한 3만 톤으로 집계되었고, 총 수탁수량은 전년대비 1.9%가 감소한 65만6천 톤으로 발표하였다.

일본, 성 분리 정액 이용 체외수정란 판매

일본 가축개량사업단은 미국 민간회사의 정자 분리기술을 도입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소 체외 수정란을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트 90'으로 명명된 이 정액은 '플로우사이트'라는 장비를 활용하여 암송아지를 낳는 X정자와 수송아지를 낳는 Y정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약 90%의 정확도가 있으나 판별기술상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일부 화우와 젖소 체외수정란에 활용되는 이 정액은 가격이 3만엔 전후로, 농가가 원하지 않는 송아지가 태어나도 송아지 및 수정란 이식대금등은 일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광우병 예방 백신 개발 쥐 실험 성공

미국 뉴욕 의과대학 연구진이 최근 광우병 예방 백신을 개발하여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비정상 단백질인 '프리온'의 이상증세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소, 사슴, 인간 등의 뇌에서 발견되는 '프리온'은 뇌를 손상시켜 이상증세를 불러일으키는 데 음식 형태로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백신은 장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프리온' 유

전자를 주입하여 제조되었는데 경구투여가 가능하여 '프리온'의 장내흡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우병은 영국에서만 20만두의 소가 감염되었고 150여명이 인간광우병에 감염었으며, 최근 캐나다에서 10번째 광우병이 발병하여 미국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생우수입의 제한조치를 취한바 있다.

미국, 치즈수입협회 수입유제품 자조금 징수 반대

미국 치즈수입협회는 자국내 수입되는 유제품에 홍보 자조금을 부과하려는 '07년 미국 행정부의 농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치즈를 수입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할당금을 징수하여, 낙농가나 수출업체가 직접 관리하며 자국산 유제품 홍보활동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수입업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 협회는 최근 5년간 미국 유제품의 대외 수출이 2배 늘었고, 미국 무역기구가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수입 장벽 완화를 추구하고 시점에 이러한 조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 장벽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하였다. 한편 동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하원 농업 위원장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